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 한국어문학의 성립과 A. A. 홀로도비치*

김태우**

〈차 례〉

1. 서론
2. 1947년까지의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의 한국어문학과
3. 홀로도비치: 러시아 한국어문학의 선구자
4. 결언

[국문초록]

본고는 1930~1950년대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레닌그라드 대학)에서 이루어진 한국어 문학 연구의 상황을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은 러시아에서 최초로 한국어 강좌가 시작된 곳이다. 한국어문학이 학문의 형태로 연구·강의되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의 일이다. 중국·일본어학과에서 한국어 과목이 개설되고 강의되기 시작한 것이다. 독일-소련 전쟁이 끝난 1947년부터 한국어문학과는 체계가 잡히고 이후 1950년대까지 현대 한국어 문법, 중세·고대 한국어 문법, 한국어의 역사, 러시아어와 한국어의 비교 문법, 한국어 회화와 글쓰기, 실용적 글쓰기, 고전 문학사, 현대 문학사 등 다양한 강좌를 제공하였다. 이와 같은 한국어문학과의 체계화의 뒤에는 홀로도비치라는 한 명의 학자가 있었다. 그는 193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한국어문학과의 대부분의 수업을 담당하였고 한국어에 관한 여러 저작을 남겼다. 그가 한국어문학과를 떠나며 한국어문학과는 잠시 동안 사라지게 된다. 그야말로 20세기 초중반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 한국어문학과의 성과 쇠를 함께한 것이다.

[주제어]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레닌그라드 대학), 한국어문학, 소련, 홀로도비치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C2A02081047)

**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전임연구원

1. 서론

러시아에서 한국에 대한 연구와 교육은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조금 일찍 시작되었다. 1860년 베이징 조약으로 인해 두만강을 경계로 조선과 러시아의 국경이 정해지고 1884년 조로 수호 통상 조약을 맺으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본격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 주된 이유였을 것이다. 그러나 19세기 중엽 이루어진 고려인의 이주 등으로 인해 이미 그 관심은 발아한 상태였다. 1874년 러시아 제국의 수도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푸칠로에 의해 발간된 『로한즈던』은 이 관심을 잘 보여준다. 이 사전에 대한 서평에서 팔라디는 조선의 문자인 한글이 세종대왕이 만든 것이라는 사실을 서양 학자로는 처음 언급하기도 했다.¹⁾ 같은 해에 판코프는 『한글 철자책』을 발간했다.²⁾ 19세기 중반을 넘어서며 이미 조선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관심은 1900년 발간된 『한국지(Корея)』에서 정점에 달한다. 러시아 재무부에서 편집한 세 권으로 이루어진 한국에 백과사전은 한국의 역사·지리·문화·종교·언어·정치·사회 전반을 망라한 제정 러시아 한국학의 총체였다.³⁾ 이보다 조금 앞선 1897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첫 한국어 수업이 시작되었다. 뒤이어 카잔과 블라디보스토크에서도 한국어 수업이 시작되었다. 이들 교육 기관에서는 자체적인 교재도 제작하여 당시의 수업을 엿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당시의 한국어 그 자체를 연구할 수도 있다.⁴⁾

본고는 러시아는 물론 유럽에서 가장 먼저 한국어 수업을 개설한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의 한국어문학 교육과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려는 시도이다.

1) 고송무, 「제정 러시아에서의 한국어 및 한국 연구」, 『한글』 169, 1980, 427쪽 참조.

2) 이 책에 대해서는 홍지인, 「러시아제국의 한국어 교육에 관하여」, 『Acta Russiana』 2, 2010, 135~137쪽 참조.

3) 『한국지』는 1984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완역하였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역, 『(國譯)韓國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4) 대표적인 연구로는 곽중구, 『함북 육진방언의 음운론: 20세기 초 러시아의 Kazan에서 간행된 문헌자료에 의한』, 1994, 태학사; King, *Russian Sources on Korean Dialects*, Ph. D.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1991. 등이 있다.

1917년 이후 중지되었던 한국어의 교육은 1934년 재개되었다. 이때부터 독일-소련 전쟁을 제외하고 약 25년 동안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에서는 한국어문학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때 등장하는 이름이 홀로도비치(A. A. Холодович)이다. 그는 극동언어학과의 학과장, 한국어문학과의 학과장 등으로 있으며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 한국어문학과의 기틀을 잡았다. 또 그는 통찰력을 지닌 한국어 연구자이기도 하다. 현대한국어뿐 아니라 중세한국어·고대한국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그 연구 결과를 이미 1940년대 후반부터 강의하였다고 한다. 비록 1960년대 이후 다른 임무를 위해 한국어문학과 멀어지게 되었으나 한국어에 대한 홀로도비치의 이론과 통찰은 그의 제자들에 의해 계승·발전되었다. 이런 사실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1950년대까지를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 한국어문학과의 성립기이자 부흥기로 규정하고 한국어문학과 성립의 역사를 살펴본다. 또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하여 당시의 한국어문학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토양을 일군 한국어문학과의 학과장 홀로도비치의 한국어 연구 업적을 검토하며 당시 러시아의 한국어학의 성과를 검토해 본다.

2. 1947년까지의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의 한국어문학과

1)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 동양학부의 역사⁵⁾

러시아에서 동양 언어의 강의는 모스크바 대학과 카잔 대학에서 1804년 11월 5일 처음 이루어졌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에서 첫 동양 언어의 강의는 1818년 3월 31일 아랍어과와 페르시아어과가 설치되면서 시작되었다.⁶⁾

5) 여기에서 서술하는 상트페테르부르크 동양학과의 역사는 Кононов, А. И., Восточный факультет ленинград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Востоковедение в Ленинградск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Ученые записки ЛГУ № 296. Серия востоковедческих наук, вып. 13), Изд-во ЛГУ, 1960, pp. 3~31 과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 아시아·아프리카 학부 영문 홈페이지(<https://en.orient.spbu.ru/index.php/en/>)를 참조한 것이다.

동양학부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임무는 동양어학과에서 동양어를 교육하는 것과 아시아 박물관을 운영하는 것이었다. 이후 터키어, 몽골어, 타타르어, 그루지아어, 아르메니아어 등도 교육 과정에 추가되었다. 그러나 동양학부는 1840년대에 접어들며 그 목표와 방향성의 모호함으로 인해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상황은 1845년 6월 20일자로 기록된 학교 관계자의 아래와 같은 기록에서 잘 드러난다.

동양 언어의 교육은 동양의 언어, 문학, 역사의 철저하고 세밀한 분석이라는 목표를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단순히, 그리고 불행하게도 학생들의 학위 취득의 수단이 되었을 뿐이다. 학교를 졸업하는 젊은이들은 동양 언어에 대한 적절한 지식과 해당 분야에 대한 애정이 결여되어 있으며 그들이 4년 동안 배운 내용을 몇 주 만에 모두 잊고 만다. 또한 대학에서 배운 것과 전혀 관련 없는 분야에서 일하게 된다. (…)⁷⁾

하지만 공교롭게도 1850년대에 접어들며 카잔 대학 동양학부가 쇠퇴하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과 카잔 대학의 동양학부를 합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1854년 10월 22일 니콜라이 1세의 칙령에

6)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은 1724년 1월 28일 개교 후 1803년에 폐교한다. 이후 상트페테르부르크 신학 대학(Петербургская учительская семинария екатерининских)은 1803년 페테르부르크 교육 연구소(Педагог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1816년 12월 23일 주 교육 연구소(Главный педагог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를 거쳐 1819년 2월 8일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으로 재편된 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7) 원문은 다음과 같다(앞의 논문, p.9에서 재인용).

“Преподавание восточных языков в здешнем университете вовсе не достигает цели, т. е. основательного и подробного изучения языков, истории и литературы Востока, а служит только, к сожалению, средством получить кое-как звание действительного студента или степень кандидата. Оставив университет, молодые люди, постушившие туда без надлежащих в восточных языках сведений и без всякой любви к предмету, забывают в несколько недель все, что выучили в четыре года, и определяются в департаменты или канцелярии, не имеющие ничего общего с предметом их университетск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Здешний восточный разряд для польз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лужбы, для чести С.-Петербург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 для преуспеяния самой науки должен быть преобразован на других началах, с другим, направлением и в обширнейшем размере. В настоящем же положении оставлять его нельзя, полезнее было бы вовсе его упразднить.”

따라 1855년 8월 27일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의 동양어학과(отделения)는 카잔 대학의 동양학부와 합쳐지며 5개의 분과에서 9개의 언어를 교육하는 동양어학부(факультет восточных языков)로 승격되었다.⁸⁾ 1855년에는 아프간어, 1858년에는 산스크리트어 등의 수업이 개설되며 점차 모습을 갖추어가게 되었다. 이후 몇 차례의 학과 체제 개편을 통해 일본어, 한국어, 티벳어, 힌디어 등이 추가되어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 동양어학부는 명실상부히 러시아 최고의 동양학 교육 기관이 된다.

2) 한국어문학의 교육

한국어의 교육은 1897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동양어학부의 학부장 이던 바실리예프(В. П. Васильев)는 1882년 동양어학부 내에 티벳어, 한국어, 힌디어 수업을 개설할 필요성을 느꼈고⁹⁾ 1888년 당시 총장이던 블라디슬라블레프(М. И. Владиславлев)에게 러시아에서의 필요성을 충당하기 위해 이들 일본어,¹⁰⁾ 한국어, 힌디어 교육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이 요청은 교육부 장관인 델리아노프(И. Д. Делянов)에게 전해졌고 승인되었다. 그러나 이 제안이 실현된 것은 십여 년 후였다. 일본어의 수업은 곧 시작되었으나 중국-만주학과에서 개설된 것이었고, 한국어 수업은 9년이 지난 1897년 같은 학과에서 선택 수업으로 시작되게 되었다.¹¹⁾ 일본어학과의 설립이 허가된 것은 1898년 2월 25일의 일이었다.¹²⁾

잘 알려져 있듯이 첫 한국어 수업은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 대관식의

8) 앞의 논문, 11면. 1분과: 페르시아어, 터키-타타르어, 2분과: 몽골어-칼미크어, 타타르어, 3분과: 중국어, 만주어, 4분과: 유대어, 아랍어, 5분과: 아르메니아어, 그루지아어, 타타르어로 이루어져 있다.

9) 앞의 논문, 18면.

10) 앞의 논문, 17면에 따르면 동양어학부에 일본어 강좌 도입이 최초로 요청된 것은 1870년 5월 30일 이고 이 요청은 같은 해 10월 10일에 제가가 되었다고 한다. 이후 중국-만주-몽골학과에서 일본어 수업이 이루어졌다.

11) Васильев, А. Г. & Г. Е. Рачков, Из истории преподавания и изучения 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Вестник центр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культуры* 2, 1997, p.8 참조.

12) Кононов, А. И., 앞의 논문, p.18 참조.

전권공사로 파견되었던 민영환의 통역을 맡았던 민경식과 김병옥에 의해 시작되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에서는 이 둘을 초청하여 한국어 수업을 맡겼던 것이다. 그러나 민경식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으로 귀국하고 김병옥이 혼자 수업을 맡게 되었고 1899년까지 김병옥은 두 권의 한국어 교재를 집필한다.¹³⁾ 그러나 김병옥의 한국어 수업은 정규 수업은 아니었던 것이지 간헐적으로 열렸다고 하며 수업이 열리지 않는 기간도 길었다고 한다.¹⁴⁾ 1917년까지 김병옥의 실용 한국어 수업은 중국-민주학과의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있었지만¹⁵⁾ 한국어 수업의 수가 늘어나고 한국어학과의 생겨나는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음은 물론이다. 1914년 1월 30일 상트페테르부르크 제국 대학 총장에게 전달된 당시 동양어학부 학장 마르(Н. Я. Марр)의 제안서는 이런 사정을 잘 보여준다.

(...) 동양어학부의 어문학 분야의 불완전함은 오랜 동안 지적되어 왔다. 현재 극 동언어 분야의 중대한 결함은 특히 심각하다. 티벳어학과와 한국어학과 개설을 위한 청원이 지난 세기에 수차례 이루어졌고 1903년에도 있었다. 동양어학부에 학과를

13) 1898년의 *Korey skie Teksty*(한국어교본)와 1899년의 *Пособие Кизучению Korey skogo Языка*(한국어 학습 교과서)이다. 전자는 편집된 『춘향전』 텍스트이고 후자는 간략한 문법서이다. 전자에 대해서는 허경진·이숙, 「19세기 러시아에서 출판된 조선어독본춘향전에 대한 연구」, 『한국민족문화』 45, 2012, 3~24쪽을, 후자에 대해서는 King, R. Korean language studies in the USSR, 『이중언어학회지』 8, 1991, 59~61쪽을 참조할 수 있다.

14) Холодович, А. А. Кафедра Корейской филологии, *Востоковедение в Ленинградск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Ученые записки ЛГУ № 296, Серия востоковедческих наук, вып. 13), Изд-во Л, 1960, 42쪽 참조.

15) Васильев А. Г. & Г. Е. Рачков, 앞의 논문, 9~10면 참조. 한편 김병옥이 1917년까지 러시아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다. 예를 들어 홍지인, 앞의 논문, 137쪽에서는 김병옥이 1901년 한국으로 돌아갔다고 보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1917년까지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에서 한국어 강좌를 했다는 견해도 있다고 한다(홍지인, 앞의 논문, 138쪽 각주 10 참조; 허경진·이숙, 전계 논문, 22쪽 참조). 『고종실록』에는 러시아주재 공사관 서기생(公使館書記生) 김병옥의 귀국 비용으로 1,100원의 예산이 책가되었다는 내용이 있는데(『고종실록』 39년 2월 13일 양력 2번째 기사) 이 기사가 전자의 견해를 뒷받침한다. 그런데 최근 Курбанов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김병옥은 1917년까지 러시아에서 한국어를 가르친 것이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Курбанов, С., Первый преподаватель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Ким Пёнок: Вчера и сегодня, *Россия XXI век Консул* 1(59), 2020, pp. 27~30 참조. 이 논문에서 김병옥 선생의 러시아인 아내의 이름이 Мария Матвеева라고 되어 있는데, 쿠르바노프 교수는 개인 서신을 통해 아내의 이름이 Мария Матвеевна [Ким]으로 고쳐져야 한다는 사실을 전했다.

증설하고 강사들을 충원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1901년에도 그러했다. (…)¹⁶⁾

러시아 교육부에서는 1914년 콘라드(Н. И. Конрад)에게 한국어를 전공하게 하여 한국어문학과를 준비하겠다는 제안서를 재가하지만, 결과적으로 콘라드는 한국어문학과가 아니라 일본어문학과와 학과장이 된다.¹⁷⁾ 이런 사정으로 인해 1917년 10월 혁명 이후 동양학부에서 한국어 교육은 중단되게 된다.

한국어와 한국에 관한 교육이 다시 시작된 것은 1930년 이후이다. 1919년 소련 인민교육위원회(Наркомпрос)의 결의에 따라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¹⁸⁾에 사회과학부(факультета общественных наук, ФОН)를 창설한다. 1925년 사회과학부에서 경제학부와 법학부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는 언어·물질문화역사학부(Ямфак)로 재편된다. 1929년 언어·물질문화역사학부는 이름을 역사·언어학부(историко-лингвистический факультет, ФИЛ)로, 1930년에는 다시 레닌그라드 역사·언어 연구소(Ленинградский историко-лингвист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ЛИЛИ)로 개명한다. 이는 다시 1933년 레닌그라드 역사·철학·언어 연구소(Ленинградский историко-филолософско-лингвист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ЛИФЛИ)로 개편된다.¹⁹⁾ 중단되었던 한국어 연구는 레닌그라드 역사·언어 연구소와 레닌그라드 역사·철학·언어 연구소 시기 일본학을 연구하던 콘라드, 스클리아로프(Д. М. Скляров), 코레안(Л. К. Корейн) 등에 의해 연구되기 시작한 것이다.²⁰⁾

16) 이 제안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Васильев А. Г. & Г. Е. Рачков, 앞의 논문, p. 9에서 재인용). В преподавании ряда филологических дисциплин на факультете Восточных языков давно отмечена неполнота : особенно остро чувствуется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существенный пробел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ветв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О кафедрах тибетского 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ов факультетом возбуждалось ходатайство неоднократно еще в прошлом столетии и в 1903 г; их интересы имелись в виду и в 1901 г., когда предполагалось увеличение числа кафедр и преподавательских сил на факультете.

17) Васильев А. Г., Александр Алексеевич Холодович (1906-1977), in Ванин, Ю. В.(ed.), *Жизнь и труд посвятившие Корею :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еведы 2-й половины XX века*. Москва : Институт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Российской Академии Наук, 2004, p. 224 참조.

18) 이 당시 이름은 ‘페트로부르크 대학(Первого Петроград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이다.

19) Кононов, А. И., 앞의 논문, pp. 24~25 참조.

1934년 이후 한국어 강좌가 다시 시작되게 된다. 이때부터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한 것은 극동언어학부의 학부장이던 콘라드와 같은 학과 소속의 홀로도비치(A. A. Холодович)이다.²¹⁾ 1934년부터 레닌그라드 역사·철학·언어 연구소의 중국·일본어학과 아래에 한국어과가 개설된 것이다. 1936년 4월 2일, 중국·일본어학과에 있던 콘라드는 한국의 역사와 언어를 가르치기 위해 동양학부 학장 사모일로비치(Л. Н. Самойлович)에게 최소 두 명의 직원과 두 명의 한국학 대학원생을 채용해달라고 요청하였다.²²⁾ 또 1938년부터 1942년까지의 계획을 수립하며 연구보조원으로 홀로도비치를, 대학원생으로 김인섭을 고용하려고 했다.²³⁾

1937년 5월 26일 회의에서 홀로도비치는 앞으로의 한국어 연구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과학적 문법 연구, 사전 편찬, 방언 연구 등을 포함한 한국어의 이론적 연구와 극동 지역으로의 방언 답사라는 실용적인 연구, 두 가지 연구 방향을 설정했다. 또한 여기에는 한국어 연구의 마지막 단계로 15세기 문헌어에 대한 연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 1938년부터 홀로도비치는 한국어 사전 편찬 준비를 시작하였고 또 1940년부터 학과의 권유로 한국사에 대한 집필도 병행

20) Елисеєв, Д. Д. & М. И. Никитина, Корееведение, *Азиатский музей – Ленинградское отделение Института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АН СССР*, М.: Наука, ГРВЛ, 1972, p. 202 참조.

21) Холодович, А. А. 앞의 논문, p. 42 참조.

22) 요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Елисеєв, Д. Д. & М. И. Никитина, 앞의 논문, p. 203에서 재인용. “...обращаю Ваше внимание и на то, что в Японском кабинете, носящем официальное название Японо-корейского кабинета, изучение Кореи совершенно не поставлено. Это является тем более нетерпимым, что не только в системе академии, но и вообще в СССР научное изучение Кореи не ведется. Необходимо положить начало научному корееведению и привлечь не менее двух сотрудников и двух аспирантов по лингвистике и истории (공식적인 명칭이 일본-한국학과인 일본학과에는 한국어 연구가 완전히 부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한국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학계에서도, 소련에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감스럽습니다. 한국학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시작하고 두 명의 직원과 두 명의 대학원생을 언어학과 역사학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결정은 학과가 타슈켄트로 피신해 있던 1943년 제가된 것으로 보인다. p. 204 참조.

23) Елисеєв, Д. Д. & М. И. Никитина, 앞의 논문, p. 202 참조. 이 시기에 홀로도비치는 동양학부와 계약이 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한국어의 문법”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이미 수행 중이었다고 한다. 이 연구는 홀로도비치가 동양학부에 임용된 이후 1937년 『한국어 문법: 제1부 형태론(Грамматик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часть I морфология)』이라는 이름으로 발간되었다. 또 이 요청 이후 김인섭을 극동 지역으로 보내 다양한 한국어 문헌을 사오도록 했다고 한다.

하였다. 독일-소련 전쟁 기간에 사라토프로 피신하여 한국어에 대한 수업은 하지 않았다.²⁴⁾ 하지만 홀로도비치는 일본어를 가르치는 일은 계속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어학과의 신입생들도 계속 받았다고 한다.²⁵⁾ 한국어학과의 첫 졸업생은 1938년에 배출되었다.²⁶⁾ 하지만 이 이후로 1947년까지 한국어를 전공하는 신입생은 더 이상 없었다.

한국어를 전공하는 신입생이 다시 입학한 것은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에서 첫 한국어 수업이 열린 1897년으로부터 꼭 50년이 지난 1947년이었다. 일본어문학과 아래에 한국어문학과가 설치되고 극동역사학과 아래에 한국역사학과가 설치된 것이다. 한국어문학과의 학과장은 일본어문학과의 학과장이던 홀로도비치가 겸임하였고 한국역사학과의 학과장은 큐네르(Н. В. Кюнер)가 맡았다.²⁷⁾ 이 때 한국어문학과에 들어온 학생은 20명(또는 21명)이었는데 이들 중 절반은 중앙아시아의 한인이었다고 한다.²⁸⁾ 이렇게 1947년 가을부터 홀로도비치는 레닌그라드 대학 동양학부에서 처음으로 한국어 문법에 대한 강의를 개설했다. 한국어 회화 수업은 소련계 한국인인 Lee, A.가 담당하다가 북한의 유학생에게 넘겨주었다고 한다.²⁹⁾

첫 졸업생이 나오기까지 한국어문학과의 어학과 문학 수업은 대부분은 홀로도비치가 담당했다.³⁰⁾ 이 당시 한국어문학과의 수업은 이용할 수 있었던 교육적 자료가 매우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문학과에서 문학을 전공하고 후에 같은 학과에서 강의를 한 트로체비치는 당시의 수업을 다음과 같

24) Елисеев, Д. Д. & М. И. Никитина, 앞의 논문, p. 204 참조.

25) Петрова, О. П. Кафедра Японской филологии, *Востоковедение в Ленинградск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Ученые записки ЛГУ № 296, Серия востоковедческих наук, вып. 13), Изд-во ЛГУ, 1960, p. 53 참조.

26) Холодович, А. А. 앞의 논문, p. 42 참조. Рачков, Г. Е. & Яхонтов, С. Е., Александр Алексеевич Холодович, *Народы Азии и Африки* 3, 1966, p. 213에는 첫 졸업이 1939년에 이루어졌다고 전하고 있다.

27) Васильев А. Г. & Г. Е. Рачков, 앞의 논문, p. 11 참조.

28) Троцевич А. Ф., Мой учитель Александр Алексеевич Холодович, *Вестник Центр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культуры* 16, 2014, p. 28 참조.

29) Васильев А. Г. & Г. Е. Рачков, 앞의 논문, p. 11 참조.

30) Троцевич, А. Ф., 앞의 논문, p. 28 참조. 트로체비치는 '모든' 수업을 홀로도비치가 담당했다고 했으나 바실리예프와 라치코프의 논문을 참고하여 조금 수정하였다.

이 회상한다.

(…) 1947년에 우리—미래의 역사학자와 어문학자들—들은 같이 공부했다. 우리에게는 단 하나의 과목, 텍스트 읽기만이 있었다. 우리는 수업을 위해 개량된 텍스트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지 않았다.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홀로도비치는 짧은 이야기, 일제 강점기 시절의 오래된 잡지의 역사적·문학적 비평 등 그가 찾을 수 있는 아무 것이나 들고 왔다. 그리고 고학년이 되어서 우리는 김태준의 『조선소설사』를 읽었다. (…)³¹⁾

또 다른 학생인 바실리에프와 라치코프도 비슷한 이야기를 전한다.

사실상 당시 수업 교구는 없었다. 처음에 홀로도비치는 ‘한국어 텍스트(초급)’ 수업의 읽기 자료로 소련 군부가 북한에서 발간한 『조선신문』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들뜬 종이에 흐릿하게 인쇄된 신문은 주로 소련 언론의 기사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을 담고 있었다. 이 단점은 학생들에게는 축복이었다. 최소한 한국어 텍스트의 내용을 도서관에서 소련 신문을 보는 것으로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사전 없이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듬해 대학 출판부에서 북한 초등학교의 교과서를 재인쇄해 주었다. 이 책은 홀로도비치가 한-러 사전과 함께 공수한 것이다.³²⁾

이 외에도 한국인 연구자들이 쓴 논문을 읽었다고 하며 전통 소설 언어의 특수성을 보이기 위해 1935년 출간된 『만고렐녀 특별무쌍춘향전』을 함께 강독했다고도 한다.³³⁾ 이 외에도 강경애, 이기영, 최서해, 나도향 등의 소설이 수업 자료로 사용되었다.³⁴⁾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한국어 문법 수업을 들은 적도 없으며 사전도 이용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는 것이다.

31) Троцевич, А. Ф., 앞의 논문, p. 29의 일부를 의역한 것이다.

32) Васильев А. Г. & Г. Е. Рачков, 앞의 논문, p. 12 참조.

33) Троцевич, А. Ф., 앞의 논문, p. 31 참조.

34) Васильев А. Г. & Г. Е. Рачков, 앞의 논문, p. 12 참조.

우리는 한국어 문법에 대한 특별한 이론적 수업을 받은 적이 없었다. 우리는 텍스트로부터 문법을 알아갔다. (...) 같은 방식으로 홀로도비치는 텍스트를 따라서 고어(古語)의 문법, 문자, 음성학을 가르쳤다. 그는 우리와 1447년 인쇄된 조선의 건국주를 찬양하는 『용비어천가』를 강독하였다. (...)

한국어 사전은 없었다. 수업 시간에 홀로도비치가 단어를 알려주면 우리는 그것을 노트에 받아 적었다. 우리가 “성장”하고 나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우리는 자신만의 한-러 사전을 가지게 되었다. 집에서 (다음 수업 시간의) 번역을 준비하는 것은 더 어려웠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당시의 한국책에는 한자가 병기되어 있어서 중국어 사전과 일본어 사전을 이용할 수 있었다. (...)35)

한국어 사전이나 한국어 문법서 하나 없이 텍스트를 읽으면서 한국어를 “탐색적으로” 공부한 것이다.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외국인에게 이와 같은 방식의 수업은 매우 어려운 것이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홀로도비치가 한국어 사전의 편찬을 서두르고 뒤이어 방대한 분량의 한국어 문법서인 『한국어 문법 개요』를 발간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업은 상당히 수준 높게 진행되었다.

한국어를 가르칠 때 홀로도비치는 먼저 텍스트를 제시하고 우리는 그와 함께 읽고 번역했다. 수업은 다음과 같았다. 집에서 텍스트의 한 문단을 번역하는 숙제가 모두에게 주어졌다. 교실에서 번역의 질을 평가했다. 홀로도비치는 우리 중 한 명을 불러서 첫 번째 구를 먼저 한국어로 읽게 하고(이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텍스트에는 한자가 포함된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는 이를 정확한 한국어 발음으로 소리 내어야 했기 때문이다) 러시아어로 번역하도록 했다. 그리고 나서 전원이 이 번역에 대해 토론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제시된 번역에 동의하는지, 또는 자신만의 번역을 제시할 것인지 말하도록 했다. (...)36)

35) Троцевич, А. Ф., 앞의 논문, pp. 30~31의 일부를 의역한 것이다.

36) Троцевич, А. Ф., 앞의 논문, p. 31 참조.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어문학과와 초석을 다진 것 또한 당시의 학과장이었던 홀로도비치였다. 한국어문학과와 첫 졸업생은 1952년 배출되었고 이 때 한국어문학과 일본어문학과로부터 독립하였다.³⁷⁾ 첫 졸업생이 배출된 이후 말하기와 쓰기 강사로 립수가, 한국어학 개론 강사로 라치코프(Г. Е. Рачков)가 임용되었고 러시아의 한국 문학 연구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니키티나(М. И. Никитина)와 트로체비치(А. Ф. Троцевич)가 대학원에 입학하게 되며 홀로도비치를 대신하여 한국문학사 강좌를 함께 개발한다.

1947년 이후 1960년까지 레닌그라드 대학 한국어문학과와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았다. 한국어문학과에서는 한국어학, 문학, 지리학, 역사 등에 대한 개론적 수업을 제공했는데, 어학 분야의 필수 수업으로는 현대 한국어 문법, 중세·고대 한국어 문법, 한국어의 역사, 러시아어와 한국어의 비교 문법, 한국어 회화와 글쓰기, 실용적 글쓰기가 있었고, 문학 분야의 필수 수업으로는 고전 문학사와 현대 문학사가 있었다.³⁸⁾ 한국어문학과가 독립한 이후에도 홀로도비치는 한국어를 더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수법과 강의를 개발하고 싶어했다.

홀로도비치는 매달 두 번씩 학과 회의를 열어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했다.³⁹⁾ 홀로도비치는 학생들이 한국어의 정확한 발음법을 익힐 수 있도록 1학년에 음성학 수업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여 ‘언어들 사이의 음성학적 차이’라는 제목의 수업을 직접 진행하였다. 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회화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표현들을 중심으로 회화 수업을 개량하였다. 또 한국어를 러시아 문법 구조에 맞게 이해하기 위해 ‘러시아어와 한국어의 비교 문법’이라는 강의도 개설했다.⁴⁰⁾

37) Васильев А. Г. & Г. Е. Рачков, 앞의 논문, p. 14; Оглоблин А.К., А.А. Холодович (К 70-летию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Вестник Ленинград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2: История, язык, литература* 1, 1977, p. 167 참조.

38) Холодович, А. А., 앞의 논문, pp. 42~44 참조.

39) Васильев А. Г. 앞의 논문, pp. 229~230 참조. 그런데 실제로 회의에서는 학과 현안보다는 연구에 관한 이야기가 더 많았다고 한다.

40) Васильев А. Г., 앞의 논문, p. 229 참조.

한국어의 역사와 관련된 수업이 1940년대 말~1950년대 초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특기할 만하다. ‘중세한국어의 음운과 문법’이라는 제목의 한국어사 수업은 홀로도비치가 담당했는데 『훈민정음』, 『용비어천가』, 『월인석보』, 『금강경언해』, 『두시언해』 등을 연구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세한국어를 가르치고 최현배의 『한글갈』, 『용비어천가』 등을 강독했다고 한다. 이후의 수업에서는 시조와 향가도 함께 다루었다.⁴¹⁾ 이 수업은 서양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국어사 수업일 것이다. 이 수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⁴²⁾

총 시수	주제	주제별 시수	내용
42시간	일반론	6시간	1. 중세한국어의 정의 2. 한글 창제의 역사, 한글 창제의 목적 3. 중세어 문헌(주로 용비어천가) 요약 4. 중세한국어 문헌의 분류
	음성학	18시간	1. 중세한국어의 음운 체계 2. 모음 체계, 모음의 변화 3. 이중모음 체계 4. 모음 체계의 변화 5. 자음 체계 6. 자음 체계의 변화 7. 음절 구조 8. 모음조화 9. 모음조화의 역사
	형태론	12시간	1. 체언: 격 체계, 비자동적 교체, ㅎ 말음 체언, 후치사 2. 용언: 어기, 불규칙 용언, 어미
	실습	6시간	강독: 훈민정음, 용비어천가, 월인석보, 금강경, 두시언해

1950년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체계적인 수업 계획이 잡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수업은 1958년까지 홀로도비치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후 한국어사 수업은 라치코프가 담당하다가 1962년부터는 바실리예프(A. Г. Васильев)

41) Васильев А. Г. & Г. Е. Рачков, 앞의 논문, pp. 13~14 참조.

42) 이 내용은 Холодович, А. А., Материалы по грамматик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XV века, Морфология. Приложения.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е публикации Отдела языков 6. Москва : Наука, 1986, 56-62면에서 가져온 것이다. 각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이 커리큘럼은 1959년에서 1960년 사이 홀로도비치가 직접 쓴 것이라고 한다. 단, 형태론 부분은 1953년 6월 1일자 원고의 수정본이라고 한다.

에게 넘어가게 된다. 홀로도비치의 마지막 수업은 한국어문학과와 강사와 대학원생을 위한 특별 세미나 수업으로, 양주동, 홍기문,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 등에서 행해진 10세기 한국어의 음운 체계와 문법 구조를 비판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었다.⁴³⁾ 이 수업은 1950년대 이후 레닌그라드 대학에서 이루어진 많은 문학 번역의 씨앗이 되었다. 홀로도비치로부터 이 시기에 한국어 고어를 배운 바실리에프, 니키티나, 라치코프, 트로체비치는 레닌그라드를 대표하는 한국어 번역가들이다.⁴⁴⁾

이 시기 비정기적인 특수 과정과 세미나도 개최되었다. 홀로도비치는 방언학에 대해, 보로비예프는 한국 물질 문화사에 대해, 니키티나는 시조에 대해, 트로체비치는 춘향전에 대한 강의를 하였고, 시제나 비유적 표현 등 한국어와 관련된 주제별 세미나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1962년 홀로도비치가 레닌그라드 언어학 연구소 소장이 되어 학과를 떠난 후 레닌그라드 대학의 한국어 강좌는 폐지되었다고 한다.⁴⁵⁾

1962년 홀로도비치가 한국어문학과를 떠나며 폐지되었던 한국어 강좌는 얼마 지나지 않아 바실리에프와 라치코프에 의해 다시 개설되었다. 이후 1992년부터는 한국사 교육 과정이 재정립되었고 한국어와 한국사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입학할 수 있게 되었다.⁴⁶⁾ 또한 2017년 7월부터는 아시아·아프리카학부에 한국학과가 독립 설치되어 많은 수의 학생들을 받고 있다고 한다.⁴⁷⁾

43) Васильев А. Г., 앞의 논문, 228면 참조.

44) 최인나, 「러시아에서의 한국고전문학: 러시아어로 번역의 역사에 관하여」, 『한국학논집』 35, 2007, 264~265쪽 참조.

45) 쿠르바노프, 「세르게이 쿠르바노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 한국학센터 소장 인터뷰」, 한국국제교류재단 참조.
(https://www.kf.or.kr/?menu=3304&type=view&evnt_no=2385&pageIndex=1&searchevnt=)

46) 쿠르바노프, 위의 기사.

47)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 아시아·아프리카 학부 한국학과 소개 페이지
(<https://en.orient.spbu.ru/index.php/en/about-faas/departments/item/116-department-of-korean-studies>) 참조.

3. 홀로도비치: 러시아 한국어문학의 선구자

제2장에서 살핀 바와 같이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의 한국어문학과는 1940~1950년대 러시아의 한국어문학 연구를 이끌었다. 그 중에서도 한국어학은 A. A. 홀로도비치라는 1인에 의해 주도되었다. 로스 킹 교수는 홀로도비치가 처음 한국어에 관련된 논문을 발표한 1935년부터 1986년 유작이 나올 때까지 50년에 걸쳐 러시아 한국어학계를 지배해 왔다고 평가했다.⁴⁸⁾ 여기에서는 홀로도비치의 생애와 한국어 연구자로서의 업적을 간략히 조망하고자 한다.

홀로도비치는 1906년 크론시타트에서 출생하였다. 이후 아버지를 따라 이르쿠츠크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17살이던 1923년 극동대학 동양학부에 입학하여 일본어를 공부하였다. 1924년 레닌그라드 대학으로 옮겨와 계속 일본어를 공부하였고 1927년 학부를 졸업하였다.⁴⁹⁾ 그의 지도교수는 다른 일본어 전공자들과 마찬가지로 콘라드였다. 이후 1932년부터 중국·일본어학과에 근무하며 고대 일본어와 현대 일본어에 대한 수업을 담당하였다. 이때부터 홀로도비치는 한국어를 독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⁵⁰⁾ 1934년 레닌그라드 역사·언어 연구소에 한국분과를 만들고 1937년에는 후에 박사논문이 되는 『일본어 군사 언어의 통사론』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한다. 이때부터 홀로도비치는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홀로도비치가 한국어를 연구하게 된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그의 지도교수였던 콘라드나 마르⁵¹⁾의 권유였을 수도 있고 일본어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한국어에 관심이 생겼을 수도 있다. 어쨌든 1930년대 중반부터 홀로도비치

48) King, R., 앞의 논문, p. 151 참조.

49) Троцевич, А. Ф., 앞의 논문; Васильев А. Г., 앞의 논문에 따른다. Алшагов, В. М. Ранние Работы А. А. Холодовича, *Изучение япон, языка в России и СССР*, 1988, p. 104에서는 1926년 졸업하였다고 했다.

50) Рачков, Г. Е. & С. Е. Яхонтов, 앞의 논문, p. 213; Васильев А. Г., 앞의 논문, p. 223 참조.

51) 홀로도비치의 학부 지도교수는 콘라드였고 대학원 과정의 지도교수는 마르였다. Khraskovsky, V. & A. Ogloblin, *The Kholodovich School of linguistic typology: 1961~1991*, *The Petersburg Journal of Cultural Studies* 1(2), 1993, pp. 128~129 참조.

는 한국어에 대한 연구 결과를 내어 놓기 시작했다. 한국어와 관련된 첫 논문은 한글의 로마자화의 원칙을 논의한 것⁵²⁾이었고 뒤이어 1937년 『한국어 문법 : 제1부 형태론』⁵³⁾을 출간하였다. 『한국어 문법 : 제1부 형태론』은 한국어 동사에 표현되는 문법 범주를 시제·법·태·상·인칭 다섯 가지로 나눈 최초의 업적으로 평가된다.⁵⁴⁾ 같은 해 『소비에트 대백과사전』의 ‘한국어’ 항목⁵⁵⁾도 집필하였다.

1년 후에는 『한국어의 구조』⁵⁶⁾라는 문법서를 발간한다. 이 책은 40페이지의 소책자로 한국어와 문자, 발음, 어휘, 형태론, 통사론 등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한국어 텍스트를 두 페이지에 걸쳐 수록해 놓았다. 이 책은 레닌그라드 대학에서 출간하던 세계의 언어 시리즈의 하나로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문법에 집중하지 않고 한국어를 전체적으로 조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한국어 문법 : 제1부 형태론』과 비교하여 한국어와 문자 관련 항목이 추가되었고 통사론에 대한 기술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통사론 항목

52) Холодович, А. А., О латинизации корейского письма, *Советское языкознание* 1, 1935, pp. 147~161.

53) Холодович, А. А., *Грамматик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Часть I: Морфология*, Москва : Московский Институт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1937. 이 책은 모스크바 동양학연구소(Московский Институт Востоковедения)에서 간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모스크바의 동양학연구소라고 하면 보통은 소련 과학아카데미의 동양학연구소(Институт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Российской Академии Наук)를 떠올린다. 이 연구소는 1930년 레닌그라드에서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아시아 박물관을 중심으로 동양학 위원회, 불교 문화 연구소, 투르크학 연구소를 합쳐 만들어진 것이다. 이후 1950년 모스크바로 옮겨가게 된다. 현재는 러시아 과학아카데미에 속해 있다(<https://www.ivran.ru/> 참조). 그런데 홀로도비치가 책을 간행한 동양학연구소는 이 동양학연구소가 아니라 1921년 모스크바의 동양학 관련 교육 기관들을 통합해서 설립된 Московский Институт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МИВ; МIV)이다. 이곳은 1954년 전문가 부족을 이유로 모스크바 국제관계연구소(Москов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Институт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 МГИМО)로 통합된다.

54) 菅野裕臣 譯, 『蘇聯의 韓國語學』, 『아세아연구』 42, 1971, 190쪽;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김태우, 『A. A. 홀로도비치의 현대한국어 연구 - 『한국어 문법 : 제1부 형태론』과 『한국어 문법 개요』의 비교 연구』, 『한국학연구』 58, 2020, 265~296쪽 참조. 다만 콘체비치 교수는 『한국어 문법 : 제1부 형태론』에 대해 ‘일본어 문법을 따라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점은 언급해 둔다(Л. Р. Кончевич, 앞의 논문, 2008, pp. 21~22 참조).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으나 책의 체계가 일본어 문법서의 체계와 동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5) Холодович, А. А.,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Большая 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34, Москва, 1937, pp. 265~266.

56) Холодович, А. А., *Строй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Ленинград : Ленинград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1938.

의 절반 이상은 앞선 책에서 형태론으로 다루었던 어미와 조사, 후치사 등을 설명하는 데 할애하고, 문장에 관한 이야기는 많지 않다.

홀로도비치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계통에 관해서도 관심이 많았는데 이에 대한 논문이 1941년 발표된 「일본어학의 역사로부터: 교착어 가설과 일본어의 친연성 문제에 대하여」⁵⁷⁾이다. 그는 한국어와 일본어가 동계의 언어라는 여러 일본인 학자들의 주장을 검토하고 그들의 주장이 성립될 수 없음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가나자와 쇼자부로(金澤庄三郎)는 어휘 비교를 통한 한국어-일본어 동계설⁵⁸⁾에 대해 이 주장에 사용된 근거는 전혀 언어학적이지 않고 정치적인 주장으로 언어학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특히 한국어와 일본어의 역사를 모른 채 무작위적인 어휘 비교를 하였다는 대목에서 홀로도비치가 한국어와 일본어의 역사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주된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은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의 공통 특질설,⁵⁹⁾ 그 중에서도 교착어라는 특질에 대한 것이었다. 오구라 신페이는 한국어와 일본어는 우랄-알타이어와 마찬가지로 모음조화, 자음 변동, 두음 법칙, 음절말 자음군의 부재, SOV 어순, 관계대명사·성(gender) 범주·관사의 부재, 교착어적 특성 등이 공통된다고 하였다. 홀로도비치는 이 중에서 교착어라는 분류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비판을 하였는데, 간단히 말해 교착어라고 분류된 언어에도 굴절 과정이 있으며 굴절어라고 분류된 언어에도 교착 과정이 있으므로 이는 언어의 계통 분류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논의는 정치적인 것일 뿐이며, 진정한 언어학자라면 우랄-알타이 가설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57) Холодович, А. А., Из истории японской лингвистики агглютинативная теория и проблема родственных связей японского языка, *Известия Академии Наук Союза ССР: Отделение литературы и языка* 1, 1941, pp. 79~98.

58) Kanazawa, S. *The Common Origin of the Japanese and Korean Languages*, Sanseido, 1910; Kanazawa, S. *Über die Kultur Japans und Koreas im alten Zeiten, vom Standpunkt der Sprachvergleichung aus Betrachtet*, Tokio, 1913.

59) 小倉進平, 『國語及朝鮮語のため』, 1920, ウツボヤ書籍店. 홀로도비치의 논문에는 1921년으로 인용되어 있다.

1938년부터 시작된 한국어 사전 편찬 프로젝트는 1951년에 일단의 결실을 맺게 된다. 『조로사전(Корейско-Русский Словарь)』이 간행된 것이다. 그러나 이 사전에 만족스럽지 않던 홀로도비치는 제2판을 위한 작업에 들어가 1958년 6만 단어 규모 『조로사전 : 6만 단어(Корейско-русский словарь : Около 60 000 слов)』⁶⁰로 확장하였다. 이 사전은 ‘한글 - 키릴 문자 - 러시아어 뜻풀이’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이 사전의 서문에서 홀로도비치는 사전학의 관점에서 한국어의 한자어에 대해 수준 높은 논의를 하고 있다. 한국어의 어휘는 고유어, 한자어, 일본어 차용어의 세 층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한국어 한자어를 1음절로 이루어진 단순어(제1그룹)와 여러 개의 음절로 이루어진 복합어로 나누고, 복합어는 몇 개의 한자가 결합하였든 두 개의 직접구성성분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들을 다시 네 개의 범주로 나누었는데, 2음절 한자어끼리의 결합인 ‘무산 계급 독재 [(2+2)+2], 인민 민주주의 국가[(2+(2+2))+2]’ 등은 제2그룹, 1음절 한자어와 2음절 한자어의 결합인 ‘녹지대[1+2], 독약학[2+1]’ 등은 제3그룹, 1음절 한자어가 두 번, 2음절 한자어가 한 번 나타나는 ‘대기업소[(1+2)+1], 미군학자[(2+1)+1]’ 등은 제4그룹, 각각의 그룹들 사이의 혼합인 ‘무궤도 전차 [(1+2)+2], 신인선 모집 위원회[(1+2)+2+(2+1)], 비식민지 국가[(1+(2+1))+2]’ 등은 복합 형성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제2그룹은 의미가 조합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등재하는 반면 제3, 4그룹은 중요한 몇 가지만 등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복합 형성 그룹은 첫 번째 단어를 표제어로 하고 그 예시로 제시한다고 하였다. 한편, 세 개의 직접구성성분으로 나누어야 하는 예도 소수 있다고 하며 ‘연월일, 견여금석(堅如金石), 노이 무공(勞而無功)’ 등의 단어를 제시하고 있다. 또 제2그룹에 속하지만 사전에 등재할 수 없는 예들로 ‘수(數), 제(第)’ 등이 들어간 수사, 단위성 의존 명사가 포함된 단어 등 여섯 유형을 들고 있다.

60) Холодович, А. А., *Корейско-русский словарь : Около 60 000 слов (Издание второе, переработанное)*, Москва :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и национальных словарей, 1958.

한편, 이 사전의 마지막에는 한국어 맞춤법의 혼란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하는데, 같은 해에 나온 『1949년 맞춤법 개정에 대한 질문』⁶¹⁾에서 맞춤법과 관련된 논의를 자세히 하고 있다. 이 논문은 1949년 북한에서 나온 『조선어 문법』⁶²⁾에 시도된 소위 ‘조선어 신철자법’에 대한 평가로, 홀로도비치는 한국어의 철자법에 대해 깊은 이해를 보여준다. 한국어의 철자법이 형태음소적으로 바뀌면서 ‘동일 형태소-동일 형태’의 원칙을 수립했으나 비자동적 교체를 보이는 용언에서 그 원칙이 무너졌음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주시경의 기본 정신을 살린 1948년의 ‘조선어 신철자법’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 철자법이 트루베츠크⁶³⁾의 ‘원음소(archiphoneme)’ 개념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는 소리를 표기한 것이 아니라 소리들 사이의 관계를 표기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한국어의 비자동적 교체(홀로도비치의 용어로는 ‘역사적 교체’)는 심리적으로 실재하는 현상이므로 이 사실을 반영하여 교체를 모두 표기에 반영하는 1933년 철자법을 옹호하고 있다.

사전을 읽고 더하는 사이에 『소비에트 대백과사전』 제2판에 ‘한국어’ 항목⁶⁴⁾을 대폭 보완해서 다시 쓰고, 홀로도비치 한국어 연구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어 문법 개요』⁶⁵⁾를 출간한다. 이 책은 러시아 문법의 관점에서 한국어를 분석한 것으로, 품사의 설정, 격 체계, 한국어 동사의 활용 범주, 중동태의 설정, 증거성의 범주 설정, ‘은/는’에 대한 정보 구조적 관점에서의 접근 등 한국어에 대한 선구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⁶⁶⁾ 이 책은 러시아

61) Холодович, А. А., О проекте реформы корейской орфографии 1949 г., Холодович, А. А. (ред.), *Вопросы корейского и китайского языкознания*, Ленинград: Издательство Ленинград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1958, pp. 19~31.

62) 조선어문 연구회, 『조선어 문법』, 평양시, 1949. 이 책은 김수경이 대부분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63) Trubetzkoy, N.S., *Grundzüge der Phonologie*, Prague, 1939.

64) Холодович, А. А.,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Большая 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Изд. 2)* 22, Москва, 1953, pp. 575~578.

65) Холодович, А. А., *Очерк грамматик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Москва: Издательство литературы на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ах, 1954.

66) 이 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菅野裕臣 譯, 앞의 논문, 190~191, 203~209쪽; 김태우, 앞의 논문을 참조.

어로 쓰인 한국어 문법서 중 아직까지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유일한 문법서로 평가되고 있다.⁶⁷⁾ 1963년에는 한국어와 일본어 자료에 근거해서 한정(telic) 동사와 비한정(atelic) 동사에 대해 논의하였다.⁶⁸⁾ 이때는 홀로도비치가 이미 언어학 연구소의 소장이 되어 언어유형론에 투신하고 있을 시기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한국어와 일본어에 대한 개별언어학적인 논의라기보다는 일반언어학적인 논의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와 관련된 그의 마지막 연구 논저는 1986년 그의 사후 콘체비치 교수에 의해 발표된 두 편의 중세한국어에 대한 논문⁶⁹⁾이다. 『용비어천가』를 바탕으로 하고 마에마 교사쿠(前間恭作)의 『용가고어전』⁷⁰⁾과 류창선의 논문⁷¹⁾을 참고하여 중세한국어를 분석한 글이다. 이 논문은 194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중세한국어 수업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라치코프가 가지고 있던 홀로도비치의 원고의 결장 부분을 보빈(Vovin, A.)이 가지고 있던 원고로부터 보충한 것이다. 여기에는 정확한 형태론적 분석, 속격 / 1 / 설정의 가능성 타진, 선어말어미 {-습-}의 기능에 대한 정확한 판단 등 1950년대에 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라고 보기 힘든 통찰력이 보인다.⁷²⁾ 한편 이 논문의 앞에 붙은 콘체비치의 서문에는 라치코프가 중세한국어와 관련된 노트 외에도 다양한 노트를 기증했다고 한다. 여기에는 주시경, 최현배, 김두봉, 박승빈의 문법서에 대한 평가, 최현배의 『한글갈』의 번역, 전문수의

67) 콘체비치 위음·김영일 옮김, 『러시아에서의 현대 한국어 연구』, 도서출판 사람, 2000, 7쪽 참조.

68) Холодович, А. А., О предельных и неопредельных глаголах (по данным корейского и японского языков), *Филология стран Востока*, Ленинград: Издательство Ленинград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1963, pp. 3~11.

69) Холодович, А. А., Материалы по грамматик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XV века: Фонетика, Приложения,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е публикации Отдела языков 5*. Москва: Наука, 1986, pp. 1~35.; Холодович, А. А., Материалы по грамматик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XV века. Морфология, Приложения,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е публикации Отдела языков 6*. Москва: Наука, 1986, pp. 1~62.

70) 前間恭作, 『龍歌故語箋』, 東京: 東洋文庫, 1924.

71) 류창선, 『龍飛御天歌의 語學的 解釋 (1-6)』, 『조선어연구 1(2-7)』, 1949.

72) 이 논문은 1980년대 한국어학에 관한 가장 중요한 간행물로 손꼽힌다. King, R., 앞의 논문, 1991, 151쪽; 미주르, 『러시아와 소련에서의 한국어학과 한국어교육』, 『이중언어학회지』 8, 1991, 34~35쪽 참조. 이 논문의 중세한국어 분석에 대해서는 김태우, 『외국인의 중세한국어 연구 - 『용비어천가』의 연구를 중심으로』, 『동아시아한국학 국제학술회의 발표자료집』, 2021, 107~122쪽 참조.

1949년 논문 요약, 이극로의 『실험도해 조선어음성학』(추정) 요약, 김두봉의 『조선말본』 요약, 오구라 신페이 저서의 요약 및 번역, 향가에 대한 두 권의 노트, 토·구결·서기, 언해의 개념이라는 짧은 소논문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논문 안에는 홍기문의 『정음발달사』로 추정되는 책이 인용되어 있다. 홀로도비치가 한국에서 발간된 다양한 한국어학 관련 논저를 섭렵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의 주된 연구 영역은 한국어였으나 한국 문학에 대해서도 상당한 식견을 갖추고 있었다. 그가 한국 문학에 대한 연구 논문을 쓴 사실은 확인되지 않지만 여러 문학 작품의 번역과 편집을 맡았다. 1938년에는 『동양인의 동화(Сказки народов Востока)』⁷³⁾라는 책에서 한국의 동화 세 편(혹부리 영감, 중국 거울, 금도끼 은도끼)을 번역하였고 1954년에는 은혜 깊은 까치, 홍길동전, 춘향전 세 편이 실린 『한국 소설(Корейские повести)』⁷⁴⁾의 서문을 작성하였다. 1955년에는 강경애의 『인간문제』,⁷⁵⁾ 1956년에는 『한국 시선(Корейская классическая поэзия)』⁷⁶⁾의 서문을 썼다. 이 외에도 몇 편의 한국 문학과 관련된 책들을 번역하거나 편집하였다. 『한국 시선』의 서문에는 『삼대목』부터 향가, 금속 활자의 발명, 한글 창제, 시조의 형식과 작가·주제, 후대의 변화, 창가 등 한국 문학의 역사를 간략하지만 빠짐없이 조망하고 있다.

홀로도비치는 1962년 레닌그라드 언어학 연구소의 소장이 되어 대학을 떠남으로써, 한국어와 일본어의 연구에서 점차 멀어지게 된다. 여기에서 그는 소련의 여러 언어학자들과 함께 ‘홀로도비치 학파’ 또는 ‘레닌그라드 유형론 학파’를 창설하고 ‘집단 유형론’이라는 새로운 연구 방법을 창안하여 여러

73) Холодович, А. А., Корейские сказки(Пер.), Сказки народов Востока, Москва, Ленинград : Издательство Академии Наук СССР, 1938, pp. 136-144.

74) Холодович, А. А., Сост., ред., вступ. статья и коммент., Корейские повести, Москва, 1954, pp. 1~17, 189~201.

75) Холодович, А. А., Кан Кён Э. Проблемы человечества(Ред.). Пер. с кор. М., 1955.

76) Холодович, А. А., Ред., пер. предисл. и примеч. : Корейская классическая поэзия. Пер. А. Ахматовой. М., 1956; 2-е изд., доп. и переработ., Москва, 1958, pp. 14~16, 293~307. 이 책은 레닌그라드 서점에 출간되자마자 매진되었다고 한다. 바실리에프, 앞의 논문, p. 231.

권의 저서를 출간하였다.⁷⁷⁾

4. 결론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의 한국어문학과와 성립과 발전, 그리고 그곳에서 이루어진 한국어와 관련된 연구 성과를 살펴 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체계적인 한국어문학의 수업이 최소한 1930년대에는 이루어졌으며 그 수준 또한 상당히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 한국어문학과에서 제공하는 수업의 종류와 내용은 굳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도, 그리고 이 수업이 이루어진 것이 외국이라는 사실을 감안하지 않고도 한국어와 한국 문학을 가르치는 학과에서 제공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의 배경에는 홀로도비치라는 한 명의 학자가 있었다. 그는 한국어 수업을 개량할 방법에 대해 깊이 고민하였고 또 한국어 연구에 큰 힘을 쏟았다. 1950년대에 이루어진 그의 현대한국어 연구는 아직까지도 고민할 거리를 던져주고 있으며,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중세한국어 연구는 당시까지 이루어진 중세한국어 연구를 종합하고 발전시킨 것이다. 아마 홀로도비치는 1950년대에 한국어를 언어학적으로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하나였을 것이다. 이런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홀로도비치의 연구 업적이 카잔 자료라든지 오창환·계봉우 등의 고려인에 의해 이루어진 자료에 비해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여기에는 언어의 장벽이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또 한 가지는 홀로도비치가 학과를 떠나면서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에서 한국어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제자들의 수가 적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1950년대부터 러시아 한국어학의 중심지가 모스크바 동양학연구소로 옮겨오게 되면

77) 언어 유형론자로서의 홀로도비치에 대해서는 Khraskovsky, V. & A. Ogloblin, 앞의 논문: Khraskovsky, V. & A. Ogloblin, The Kholodovich School of linguistic typology : 1961~1991, *The Petersburg Journal of Cultural Studies* 1(3), 1993, pp. 113-126; Алпатов, В. М. Александр Алексеевич Холодович, *Отечественные лингвисты XX века*, 2003, pp. 95~105 참조.

서, 한국에서 마주르, 콘체비치 등의 연구는 부분적으로 알려진 반면 홀로도비치의 연구는 그만큼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큰 한계점 한 가지를 스스로 자인하며 논문을 끝마치려 한다. 이와 같은 류의 연구는 1차 자료를 이용하여 지식을 생산해야 하는 종류의 작업이다. 그러나 이 연구를 시작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국가 간의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에 당시의 자료가 꽤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2차 자료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나타나게 될 논문의 여러 오류들은 모두 필자의 것이다.

■ 참고문헌

- 고송무, 『제정 러시아에서의 한국어 및 한국 연구』, 『한글』 169, 1980, 411~430쪽.
- 곽충구, 『함북 육진방언의 음운론 : 20세기 초 러시아의 Kazan에서 간행된 문헌자료에 의한』, 1994, 태학사.
- 김태우, 『A. A. 홀로도비치의 현대한국어 연구 - 『한국어 문법 : 제1부 형태론』과 『한국어 문법 개요』의 비교 연구』, 『한국학연구』 58, 2020, 265~296쪽.
- 김태우, 『외국인의 중세한국어 연구 - 『용비어천가』의 연구를 중심으로』, 『동아시아한국학 국제학술회의 발 표자료집』, 2021, 107~122쪽.
- 곤찌비치 역음·김영일 옮김, 『러시아에서의 현대 한국어 연구』, 도서출판 사람, 2000.
- 류창선, 『龍飛御天歌의 語學的 解釋 (1-6)』, 『조선어연구 1(2-7)』, 1949.
- 마주르, 『러시아와 소련에서의 한국어학과 한국어교육』, 『이중언어학회지』 8, 1991, 26~41쪽.
- 조선 어문 연구회, 『조선어 문법』, 평양시, 1949.
- 최인나, 『러시아에서의 한국고전문학 : 러시아어로 번역의 역사에 관하여』, 『한국학논집』 35, 2007, 259~279쪽.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역, 『(國譯)韓國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 허경진·이숙, 『19세기 러시아에서 출판된 조선어독본출판전에 대한 연구』, 『한국민족문화』 45, 2012, 3~24쪽.
- 홍지인, 『러시아제국의 한국어 교육에 관하여』, 『Acta Russiana』 2, 2010, 135~137쪽.
- 小倉進平, 『國語及朝鮮語のため』, 1920, ウツボヤ書籍店.
- 菅野裕臣 譯, 『蘇聯の 韓國語學』, 『아세아연구』 42, 1971, 187~216쪽.
- 前間恭作, 『龍歌故語箋』, 東京 : 東洋文庫, 1924.
- Kanazawa, S. *The Common Origin of the Japanese and Korean Languages*, Sansendo, 1910.
- Kanazawa, S. *Über die Kultur Japans und Koreas im alten Zeiten, vom Standpunkt der Sprachvergleichung aus Betrachtet*, Tokio, 1913.
- Khraskovsky, V. & A. Ogloblin, The Kholodovich School of linguistic typology : 1961-1991, *The Petersburg Journal of Cultural Studies* 1(2), 1993, pp.125-143.
- Khraskovsky, V. & A. Ogloblin, The Kholodovich School of linguistic typology : 1961-1991, *The Petersburg Journal of Cultural Studies* 1(3), 1993, pp.113-126.
- King, R. Korean language studies in the USSR, 『이중언어학회지』 8, 1991, pp.42~153.
- King, R. *Russian Sources on Korean Dialects*, Ph. D.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1991.
- Trubetzkoj, N.S., *Grundzüge der Phonologie*, Prague, 1939.
- Алпатов, В. М. Ранние Работы А. А. Холодовича, *Изучение япон. языка в России и СССР*, 1988, pp.104~109.
- Алпатов, В. М. Александр Алексеевич Холодович, *Отечественные лингвисты XX века*, 2003, pp.95~105.

- Васильев А. Г., Александр Алексеевич Холодович (1906~1977), in Ванин, Ю. В. (ed.), *Жизнь и труд посвятившие Корею: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еведы 2-й половины XX века*. Москва : Институт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Российской Академии Наук, pp.223~235.
- Васильев, А. Г. & Г. Е. Рачков, Из истории преподавания и изуч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Вестник центр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культуры* 2, 1997, pp.7~18.
- Елисеев, Д. Д. & М. И. Никитина, Корееведение, *Азиатский музей – Ленинградское отделение Института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АН СССР*, М. : Наука, ГРВЛ, 1972, pp.202~208.
- Кононов, А. И., Восточный факультет ленинград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Востоковедение в Ленинградск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Ученые записки ЛГУ № 296. Серия востоковедческих наук, вып. 13)*, Изд-во Л, 1960, pp.3~31.
- Кончевич, Л. Р., Слово об Александре Алексеевиче Холодовиче, *Вестник Центр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культуры* 10, 2008, pp.21~26.
- Курбанов, С., Первый преподаватель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Ким Пёнок : Вчера и сегодня, *Россия XXI век Консул* 1(59), 2020, pp.27~30.
- Оглоблин А. К., А.А. Холодович (к 70-летию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Вестник Ленинград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2: История, язык, литература* 1, 1977, pp.167~168.
- Петрова, О. П. Кафедра Японской филологии, *Востоковедение в Ленинградск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Ученые записки ЛГУ № 296. Серия востоковедческих наук, вып. 13)*, Изд-во Л, 1960, pp.45~57.
- Рачков, Г. Е. & С. Е. Яхонтов, Александр Алексеевич Холодович, *Народы Азии и Африки* 3, 1966, pp.212~217.
- Троцевич А. Ф., Мой учитель Александр Алексеевич Холодович, *Вестник Центр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культуры* 16, 2014, pp.27~40.
- Холодович, А. А. Кафедра Корейской филологии, *Востоковедение в Ленинградск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Ученые записки ЛГУ № 296. Серия востоковедческих наук, вып. 13)*, Изд-во Л, 1960, pp.42~45.
- Холодович, А. А. О латинизации корейского письма, *Советское языкознание* 1, Ленинград, 1935, pp.147~161.
- Холодович, А. А., *Грамматик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Часть I: Морфология*. Москва : Московский Институт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1937.
- Холодович, А. А., Из истории японской лингвистики агглютинативная теория и проблема родственных связей японского языка, *Известия Академии Наук Союза ССР: Отделение литературы и языка* 1, 1941, pp.79~98.
- Холодович, А. А.,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Большая 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Изд. 2)* 22, Москва, 1953, pp.575~578.
- Холодович, А. А., О предельных и неопредельных глаголах (по данным корейского и

японского языков), *Филология стран Востока*, Ленинград : Издательство Ленинград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1963, pp.3~11.

Холодович, А. А., О проекте реформы корейской орфографии 1949 г., Холодович, А. А. (ред.), *Вопросы корейского и китайского языкознания*, Ленинград : Издательство Ленинград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1958, pp.19~31.

Холодович, А. А., *Очерк грамматик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Москва : Издательство литературы на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ах, 1954.

Холодович, А. А., *Строй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Ленинград : Ленинград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1938.

The Establishment of Korean Linguistics and Literature Studies in St. Petersburg University and A.A. Kholodovich

Kim, Taewoo*

This article aims to show Korean linguistics and literature studies carried out at St. Petersburg University (Leningrad University) between the 1930s and the 1950s. St. Petersburg University was the first university in Russia to provide Korean language courses. In the 1930s, Korean linguistics and literature began to be studied and lectured in the form of academics. The department of Chinese and Japanese studies opened the Korean language courses. The department of Korean linguistics and literature was systematically run in 1947 after the German-Soviet War. It provided various subjects such as Present Day Korean grammar, Middle and Old Korean grammar, history of the Korean language, comparative grammar between Russian and Korean, Korean conversation and writing, practical writing, history of classic literature, history of modern literature. There was one scholar named Kholodovich behind the systematization of the department. From the 1930s to the 1950s, He was in charge of most classes in the department and left numerous works on Korean linguistics. As he left the department, it disappears until recently. Indeed, he was with the rise and fall of the department of Korean linguistics and literature at St. Petersburg University in the mid-20th century.

* Full-time researcher, Center for Korean Studies, Inha University

Key words : St. Petersburg University(Leningrad University), Korean linguistics and literature, USSR, Kholodovich